

채란계 사육수수 감축협조 요청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양계불황에 대처하고 계시는 전양계인의 노고에 대하여 중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와 같이 최근 몇년동안 채란계 사육수수의 증가로 계란생산은 계속 증가추세인 반면 소비는 한정되어 가격은 해마다 하락하는 실정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이 불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조짐이어서 본회는 각종 매스컴이나 세미나 및 회의때마다 생산조절을 호소해 왔으나 생산자들의 미미한 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88올림픽 개최기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수를 늘리고 있다고 하나, '86아시안경기시 경험한 바와 같이 노점상 및 포장마차 철거, 외식격감(각 가정에서 T.V시청관계로) 내국인 관광숫자 감소 등으로 양계산물은 평상시보다 소비량이 감소될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현시점에서는 우리 생산자 자신들의 감축 이외에 생산조절 기능이 없으므로 우리가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산 감축을 하지 않으면 다같이 도산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오니 전체 생산농가에서 병아리 입식감축(10%정도)은 물론 노계의 과감한 도태를 나 자신부터 실시하여 줄 것을 재삼 호소합니다.

특히 대군양계농가는 앞장서서 감축에 참여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구 분	85년(기준)	86년(전년대비)	87년(전년대비)	88년(전년대비)
산란사료생산량(1~4월누계 M/T)	353,435(100%)	427,431(120.9%)	573,377(134.1%)	640,823(111.8%)
평균난가(1~4월까지 10개 대란 /원)	528(100%)	429(81.3%)	405(94.4%)	363(89.6%)

*85년 대비 88년도 생산증가율 : 181%

1988.6.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